

18世紀 初 <燕行錄>에 기록된 朝鮮知識人의 服飾觀에 관한 연구

- 金昌業 · 崔德中의 <燕行錄>을 中心으로 -

전혜숙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섬유학부 교수

1. 연구목적 및 방법

조선조는 性理學을 전공한 士大夫 學者 官僚들이 이끌어간 文治國家로, 이들의 대외관이나 복식관을 기록한 <燕行錄>이 있는데, 18세기 初 肅宗 38년(1712년)은 17세기 국가 대외인 北伐論과 對明義理論이 퇴색되어 가며, 무너진 유교문화질서의 회복방법이 朝鮮中華主義를 싹트게 하고, 조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고조에 달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시기 청나라 견문기록인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崔德中의 <燕行錄>은 동일 기간에 동일문화권인 淸國 문물을 보는 대외시각이 의관제도를 통해 잘 나타나 있으니, 그를 통해 대외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목적은 첫째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대외관을 알아보고, 둘째 청, 조선의 의관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아보며, 셋째 청대복식을 보는 관점에 두 사람의 대외인식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결과

18세기 당시 조선 지식인의 화이론적 국제관은 명조가 없어진 현실에서 조선이 중화문화를 계승할 역사적 역할을 재인식하며, 朝鮮中華思想으로 발전시켜나갔으며, 연행록이 기록된 숙종대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뿌리내리게 되는 상황에서 유교문화를 계승한 조선인과 조선문화에 대한 자존의식이 더욱 고조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조선지식인의 화이론을 의관문물 평가에서 보면, 명을 계승한 조선 의관제도가 최고이고, 청인들의 의관문물은 의관이 아니라는 시각으로, 당시 조선지식인들의 복식관은 곧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지식인의 대표인 김창업, 최덕중의 청나라 견문록인 <연행일기>를 고찰 분석해보면, 김창업의 <연행일기>에는 저자가 한인들에게 조선의관이 정말 의관이라는 답변을 받고 싶어 하는 모습과, 조선의복을 보며 明文化를 회고하고 청의관을 입은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한인들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최덕중의 <연행록>에는 긍정적으로 청인관복을 칭찬하고 조선관복을 문란하다고 비판하기도 하나, 남겨진 명의 여자복식이 사랑스럽고, 삭발하는 모습과 中華禮服이 연회복으로 타락함, 짧고 비좁은 호복에 대하여 개탄하고 있다. 두 사람의 시각 차이를 보면, 김창업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선중화사상을 조선복식제도를 통해 펼쳐나가고, 청의 복식을 보는 관점도 부정적으로서 골수적인 화이론을 복식관을 통해 잘 나타내주고 있었다. 최덕중은 전반적으로 청의 복식제도에 부정적인 시각이나, 좋은 제도는 칭찬하고 있으니, 강직한 그의 성품답게 직접적인 반청의식을 표출하고 개탄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려는 자세가 잘 나타나 있어서, 18세기 조선지식인들이 전반적으로 추구해 나가던 조선중화사상이지만 각기 처해진 현실감각에 맞게 국제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